

적극적인 토론과 발표를 이끄는 문제설정식 수업 전략

김 슬 웅
연세대 국어국문학 강사



1. '배워서 남 주냐'에서 '배워서 남 주자'로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고 한다. 많이 배울수록 겸손해야 한다는 뜻이리라. 옳은 말이지만 소극적 실천을 겸손으로 치장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내가 아끼는 말이 있으니, ‘배워서 남 주냐’가 아니라 ‘배워서 남 주자’. 토씨를 하나 바꿈으로써 우리는 개념의 전복과 실천의 역동성을 설정할 수 있다. 물론 이 속담은 많이 배울수록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경계한 것이지만 그럴수록 제대로 익은 벼가 고개 들어 당당히 이 세상에 대해 무언가를 말해야 한다.

‘배가와 가배’라는 말도 내가 무척 아끼는 말이다. 배우면서 가르치고 가르치면서 배우는 사람. 우리 모두가 바로 그런 사람들이다. 교수가 연구에 전념하기 위해 강의 시간을 대폭 줄여야 한다는 담론을 나는 이해하지 못한다. 연구와 강의가 상호 자극이 되지 않는다면 그런 말은 당연히 옳다. 그러나 이런 경우는 자극을 제대로 생산하지 못한 선생의 책임이다. 분명 연구와 강의는 상호 자극과 실천의 매개변수로 설정되어야 한다. 교수가 논문을 위해 애를 쓰는 만큼 학생들에게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에 대해 끊임없이 고민하고 연구해야 한다. 나는 대학강의를 한 지 한 해 반밖에 안 되는 풋내기 강사지만 여기 이 귀한 지면을 채울 영광을 얻은 이유가 거기에 있을

것이다. 나는 내 전공 분야에 대한 실력이 세계 최고라고는 절대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나 학생들에게 제대로 가르치기 위해 세계에서 가장 많이 노력하고 또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음을 자부한다. 나는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그들의 눈빛, 앉아 있는 자세, 그들이 내는 보고서에서 끊임없이 자극을 받고 영감을 얻는다.

2. 문제설정식 수업 전략

수업(교육)의 궁극적 목적은 학생들의 문제설정 능력을 키워 주는 것이다. 교육의 진정한 목표는 고기를 던져 주는 것이 아니라 고기 낚는 방법을 알려 주는 것이라는 답론은 수정되어야 한다. 교육의 진정한 목표는 '고기를 왜 낚아야 하는가'라는 문제설정 능력을 키워주는 것이다. 물론 고기 그 자체와 고기 낚는 방법이 소중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다. 그것이 진정 소중한 가치를 지니려면 왜 고기를 먹어야 하고, 꼭 낚을 필요가 있는지를 물어야 하지 않겠는가.

문제설정은 문제제기를 좀더 생산적으로 전략화시킨 개념이다. 문제제기가 단순한 질문 행위라면 문제설정은 왜 질문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맥락(틀)을 중요하게 여긴다.

나는 수업 시간마다 학생들과 어떤 문제 설정으로 만날 것인가 고민하고 토론한다. 물론 이런 전략은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지향하는 바이겠지만 나만의 독특한 전술이 하나 있다. 수업 시간마다 학생들로부터 수업 내용에 대해 문제설정을 하나씩 쓰게 해서 받는다는 점이다. 수업 시작할 때 받는 경우도 있고 끝날 때 받는 경우도 있다. 이

는 수업 맥락에 따라 달라진다. 먼저 학생들의 문제설정의 일부를 보자. 학생들의 문제설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는 수업 방식에 대한 문제설정이다.

〈수업 방식에 대한 문제설정〉

강수훈 : 틀에 박힌 입시 위주의 고등학교 수업 방식을 벗어나 자유로운 주제물 소신있게 말하는 여러 친구들, 한 마디로 시원 시원하신 교수님과 함께 공부하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앞으로도 자유롭고 환기찬 수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신우 : "통념을 깨자."고 하는 수업 주제는 좋지만, 통념을 깨자는 통념을 갖고 수업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정도를 먼저 하고 나중에 예외적인 입장에서 통념을 깨자고 하면 좋겠습니다. 너무 진보적인 생각은 위험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김나영 : 매시간 문제설정을 해야만 출석 체크가 되는건가요? 그렇다면 좀 부담스럽네요. 문제설정이란 마음 속에서 진심으로 우려나야 가능한 것인데 매시간 그렇게 될는지... 노력은 하였습니다. 아직 고등학교식의 수업방식에만 익숙해져서 그런지 여기서의 수업방식, 숙제 방법 등이 모두 낯설어요. 빨리 적응을 해야겠습니다. 특히 보고서를 PC로 작성해야만 한다는 것은 PC가 없는 이들에게는 큰 부담인 것 같습니다.

이러한 문제설정은 내 수업 방식에 대한 반성과 검토에 많은 도움을 준다. 물론 학생들의 모든 문제설정을 받아들이는 것은 아니다. 나름대로 의의가 있을 때 다른 학생들과의 공감대를 거쳐 수용된다. 다음은 수업 내용에 대한 문제제기다.

〈수업 내용에 대한 문제설정〉

고경은 : 텍스트에서 콘텍스트(context)로, 의미

맥락을 읽어내는 것, 항상 그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비속어, 은어를 사용한다고 해서 그것이 나쁜 말이며 언어 폭력인 것은 아닐 것이다. 교재에 나와 있는 것처럼 바른 말들 - 이른바 표준어?!-이 사용하기에 따라 폭력적이 될 수도 있다. 중요한 건 텍스트가 아니라 콘텍스트이니까. 물론 그러려면 올바른 텍스트 분석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오늘 선생님의 분노(?)를 이해하지만 조별 토론에서는 오히려 그런 심도있는 분석이 어려운 것 같다. 조별로 토론해서 그 결과를 제출하기보다 개인이 결과를 제출한 후 토론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생각한다.

임동석 : 같은 단어의 욕이라든 과거 전통사회에서 사용되었던 욕은 웬지 구성지고 정이 담겨있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반면에, 현대사회의 욕은 너무나 날카롭다. 현대인들의 마음이 너무 강박해져 있는 것 같다. 그런 면에서 욕을 너무 많이 사용하면 별로 좋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문제설정 능력을 키우기 위한 전략 때문이다. 이는 문제의식을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행위이다. 학생들로부터 받은 문제설정은 전산처리하여 그 다음 시간에 모든 학생들에게 나눠준다.(전산처리는 학생들 자원 봉사로 하든가 아르바이트로 처리한다. 아르바이트로 할 때는 A4 표준양식 한 장에 천원씩 든다. 또 매시간 이렇게 하다 보니 복사비가 많이 드는 흠이 있다. 학생들 개인 부담으로 돌리기는 어렵다. 학교측에서 무료로 해 주는 것은 수업 4일 전에 맡겨야 하는데 그게 쉽지 않다. 나는 내 복사량의 3분의 1 정도를 학교에 맡기는데도 수업과로부터 복사를 너무 많이 맡긴다고 경

고를 받았다. 강사료 2만 원으로는 너무 힘이 든다. 결국 이런 수업 방식의 문제는 비용이 많이 든다는 점이다.)

이렇게 하면 학생들은 서로의 문제설정을 공유함으로써 토론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셈이 된다. 이러한 문제설정은 수업의 연속성과 생산성을 부여해 주어 좋다. 당연히 수업 참여도를 좀더 잘 알 수 있어 좋다. 보통 수업 참여도를 출석으로만 평가하는 선생님들이 많다. 이는 비생산적인 방법이다. 우선 학생수가 50명이 넘어가면 체크하는 데만 15분에서 20분이나 걸린다. 문제는 어떤 방식으로 수업에 참여했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꼬박꼬박 출석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100퍼센트 출석한 학생이 90퍼센트 출석한 학생보다 훌륭하다고 장담할 수 없다. 모든 시간 출석했어도 아무 의식 없이 왔다가 가는 출석기계 학생들도 있기 때문이다. 그런 학생보다는 몇 번 빠졌어도 좀더 진지한 자세로 수업에 참여한 학생이 더 높은 평가를 받아야 한다. 그래서 나는 출석 체크를 절대화 하는 것에 반대한다. 살다보면 수업을 빠질 수도 있는 것이다. 출석 체크로 선생의 권위를 지켜나가서는 안 된다. 실력과 수업에 대한 열정, 학생들의 자발적인 분위기 유도 등을 통해 선생님과 수업을 자리매김해야 할 것이다.

물론 출석 체크는 학생들 이름을 빨리 외우는 데 도움이 되기도 한다. 그러나 사실 그 많은 학생을 출석 체크를 통해 외우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래서 내가 짜낸 묘안은 학기초에 조별로 나눈 뒤 사진을 찍는 것이다. 기록에도 남고 쉽게 이름을 외울 수 있다.

이러한 문제설정은 고등학교 콩나물 교

실보다 더욱 열악한 대학교 수업 환경을 보완해 주는 구실을 한다. 무슨 얘기이고 하면 수업 시간에 제대로 할 수 없는 토론을(100명을 모아놓고 무슨 토론이 되겠는가) 보완해준다. 수업시간에 미처 발표하지 못한 의견을 주고 받는 다리와 광장 구실을 하기 때문이다.

한 학기가 끝나면 학생들이 낸 문제설정은 수업 참여 평가의 주된 근거가 된다. 한두 개 문제설정만 가지고는 그 학생이 수업에 어떤 방식으로 참여했는지 잘 알 수 없지만, 그것이 열 개가 넘어가면 맥락 설정이 가능해지고 의미 부여가 이루어질 수 있고 따라서 개별평가가 가능하다. 그러므로 이러한 문제설정 수업 방식은 여러 모로 쓸모가 많은 셈이다. 특정한 날짜에 본 시험이 아니라 평소의 생활양식으로 평가를 하니 이 얼마나 신뢰로운 평가 방식인가. 또 하나의 효과는 수업에 대한 반응과 효과를 금방금방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이다.

(어느 학생이 한 학기 동안 낸 문제설정의 일부)

김미조 : “황찬욱”의 글에서 ‘사과’의 예는 적절한가? 그의 의도는 형식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려는 것으로 이해되는데 그가 이야기한 사과의 형식은 고정되어 있다. 다른 여지를 생각한다는 것은 그의 말대로 웃긴 얘기다. 그러나 이 문제가 문제삼는 형식이라는 것은 상황에 따라 가변하는 것인데 이것이 적절하다 할 수 있을까?

김미조 : 시간이 흐를수록 교육환경이 열악함에 대해 분노를 느낀다. 대여섯 명, 아니면 많아도 열 명이 빙그렇게 둘러앉아 선생님 말씀을 듣고 그에 대해 자기 생각을 말하고 질문하고 반박해야 하는 것 아닌가. 내 자신 역시 여전히 죽어있음을 느끼며 머리 싸매고 대책을 생각해 본다.

김미조 : 자신의 독서 경험에 대해 이야기를 주고 받을 수 있는 시간이 흔치 않기 때문에 오늘 수업은 아주 귀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지적 자극을 받고 독서 생활에 더욱 충실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여전히 열악한 교육 환경 때문에 소수가 다수에게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식으로 이루어져 아쉬운 느낌이 남습니다.

김미조 : 땡그렇게 둘러 앉아서 진행된 오늘 수업은 학생과 선생님이 동등한 위상에서 있다는 것을 상징해 또 하나의 틀을 짰다는 뿌듯함을 안겨 주었다. 일상 생활에서 지나치기 쉬운 것들에 대해 좀더 관심을 기울이고 세상을 지금껏 배워온 대로가 아니라 자신의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기 위한 준비 작업으로 다양한 관점을 설정하는 것을 실천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었다는 점에서 오늘 수업은 의의가 있었다. 그러나 정작 깊은 관심을 기울여야 했을 ‘이름짓기’에 대해 지나치게 짧은 시간과 생각을 투자한 것은 아닐는지.

김미조 : 내 삶에 굵은 획을 그은 강의였다. 난 공동체주의자였고 그래서인지 ‘내 자아’가 희미하다는 생각을 많이 해 왔다. 그래서 인지 요즘 부쩍 삶이 무료하다는 생각을 많이 하던 중, 한 가지 대안을 얻은 것 같다. 그 외에도 추상적 사고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게 해 주었고, 관점 설정의 방법을 ‘살아있는 text’를 통해 배웠다. 1년의 무게를 가진, 2시간의 강의. 두고두고 잊지 못할 것이다.

3. 강의계획서 전략

수업 진행에 하나의 이정표가 되는 강의계획서의 설정도 중요한 전략이다. 연세대학교 강의 평가표를 보면 강의계획서대

로 강의를 충실하게 진행했느냐는 항목이 있다. 이런 항목은 문제가 있다. 강의계획서에 권위를 부여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강의계획서에 관련된 나의 전략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무릇 열린 학습이 학생과 선생간의 상호작용 속에서 설정되는 것이라면 강의계획서는 널널하게 설정되거나, 설정될 필요가 없다고 본다. 상호작용은 미리 설정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만약 계획표 교안대로 강의하려고 강의실에 들어갔는데 학생들이 의외의 반응을 보이면 어떻게 할 것인가. 하던 수업을 멈추고 다시 교안을 수정해 강의할 것인가. 아니면 학생들 반응에 개의치 않고 막무가내로 계획서대로 밀고 나갈 것인가. 강의계획서대로 철저히 밀고 나가는 것은 교수를 위해서나 학생들을 위해서나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물론 강의의 일관성을 위해 어느 정도의 강의계획 설정이 필요함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열린 원칙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둘째, 강의계획서는 매학기 다르게 짠다. 시대의 변화와 연구 성과를 고려한다면 당연히 바뀔 수밖에 없다.

셋째, 똑같은 과목일지라도 과마다 다르게 짠다. 이를테면 똑같은 신문 분석일지라도 체육학과는 스포츠 신문 분석으로 변형시킨다. 그리고 건축학과라면 집에 관한 속담을 가지고 토론한다. 자연학부 학생들과의 소설 토론에서는 크라이튼의 '주라기 공원', '잃어버린 세계'를 선택해 과학적 지식과 문학적 상상력을 결합하는 문제를 다룬다. 물론 카오스 이론이나 복잡계 이론, 미시 물리학에 대한 인문학적 읽기도 시도한다. 그리고 수업 첫시간에

강의계획서는 나눠 주지만 그것이 진행 상황에 따라 얼마든지 바뀔 수 있음을 알려준다.

4. 수업 진행 방식 전략

수업 진행 방식은 고정된 틀이 있을 수 없다. 학생 수나 교실 여건, 수업 분위기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이다. 나는 크게 세 가지 방식을 한 학기 동안 적절히 섞어서 하고 있다. 첫째는 내 강의로만 진행하는 방식이다. 이 때는 강의를 항목식(개요식)으로 요약한 것을 미리 나눠 주고 강의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학생들이 필기에 신경을 써 서로 집중이 안 되기 때문이다.

두 번째 전략으로, 되도록 통합교육 방식을 따른다. 통합교과나 강제적 학문이 요즘의 추세라서 그러는 것은 아니다. 열린교육을 추구하다 보면 저절로 통합교육 방식을 따를 수밖에 없다. 언어와 문학에서의 근대성, 탈근대성을 논의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과학이나 철학에서의 근대성 논의를 하게 된다. 이는 언어와 문학에 관한 지식과 철학, 과학에 관한 지식을 통합하는 전략이 아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지식은 백과사전식 지식이 아니고 그럴 수도 없다. 내가 추구하는 통합교육은 맥락과 담론에 의해 설정되는 것이다. 왜 우리가 언어와 문학에서 근대와 탈근대를 논의해야 하는가라는 맥락에 의해 우리는 담론 전략을 설정하게 된다. 근대와 탈근대를 지식의 대상이나 시기 구분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생활양식으로 바라본다는 것이며 그로 인한 의미와 효과를 중요하게 여긴다는 것이다. 이러한 담론 전

략에 의해 우리는 이론과 실천의 이분법을 극복하고 삶을 역동적 구성체로 설정하게 된다.

세 번째는 토론 전략이다. 토론이라고 해서 일정하게 모여 쌍심지를 켜고 주고 받는 언어행위만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다. 우리의 문제설정, 담론전략 자체가 토론이다. 이런 개념을 밑바탕에 깔면서 조별 모둠 토론을 진행한다. 조별 토론을 먼저 거친 뒤 전체 토론으로 재구성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워낙 인원이 많으므로 무조건 전체 토론으로 들어가는 것은 비생산적일 때가 많다. 조별 토론 진행 방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 주제나 환경에 맞게 선택한다. 가장 일반적인 것으로는 순차별 토론/발표가 있다. 십여 개 주제로 나눠 매주 한 조씩 토론해서 발표한 후 전체 토론을 하는 방식이다. 이 방식은 진행하기 쉬운 면은 있으나, 학생들은 발표조가 아니면 그 주제에 대해 제대로 공부를 안하는 단점이 있다. 그리고 발표조는 한 학기에 한 번 발표하므로 그 때는 온 힘을 쏟게 되지만 다른 조가 발표할 때는 건성으로 넘어가게 된다. 그래서 이런 단점을 보완하기 위한 방법이 동시 다발 전략이다. 3~4주에 한 번씩 발표하되 모든 조가 동시에 토론하고 동시에 발표하는 방식이다.

(각 주제별 준비 전략)

【제 1주제】 상대평가/학부제/학문의 본질/대학의 목적

· 설정 취지

도대체 대학의 목적은 무엇인가. 우리 학교 상대평가에 대한 비판을 통해 학부제, 학문의 본질, 대학의 목적, 대학 문화의 현주소, 대학과 사회 등 근본적인 문제를 진단한다. 총장, 교무처장, 연세춘추, 연세방송 등에 공동 보고서를

보내 우리의 비판을 알린다.

· 분담 준비(일부를 제외하거나 바꿀 수 있음)

- 1조. 상대평가와 절대평가의 장·단점 비교
- 2조. 서울 주요 대학의 평가제도 조사 비교
- 3조. 우리 학교 상대평가의 문제점
- 4조. 우리 학교 상대평가를 만든 배경과 반응 조사(교무처장, 교수, 강사, 학생 인터뷰)
- 5조. 학부제의 배경과 문제점
- 6조. 대학과 학문의 목적
- 7조. 지식인의 자세
- 8조. 통신망 조사 및 토론 개설
- 9조. 천리안 복수 검색, 참고문헌 조사 발표
- 10조. 공동보고서 작성, 전단지 작성

· 주요 참고 문헌

이성원, 1996, 대학의 이념과 오늘의 과제, 사회비평 14호, 사회비평사.
 이태수, 1996, 전문 직업교육 체제로서의 대학의 역할, 사회비평 14호, 사회비평사.
 정호근, 1996, 보편적 지식인과 전문적 지식인, 사회비평 14호, 사회비평사.
 한정화, 1996, 사립대학의 개혁 방향, 사회비평 14호, 사회비평사.
 신광현, 1996, 대학의 담론으로서의 논문, 사회비평 14호, 사회비평사.
 김슬옹, 1996, 교양국어를 없앤다구요, 길지 1997년 4월호,
 김봉구, 한국의 지식인상(연세대 대학국어)
 함석헌, 들사람 열(연세대 대학국어)
 이상은, 동양적 인간형(연세대 대학국어)

위와 같은 방식은 주제마다 모든 조가 참여하므로 좀더 활기찬 토론이 돼서 좋지만 학생들이 무척 힘들어한다. 요즘 학생들은 조별로 모여서 토론하는 것을 싫어한다. 같이 모이는 것 자체가 싫다는 것이다. 한 학기에 한 주제 가지고 모이는 것도 힘든데 여러 주제로 자주 모이는 것은 참을 수 없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그런 소극적인 태도를 받아들이는 것이 눈높이 교육은 아니다. 그러니까 횡수를 적절하게

배분하게 되면 무척 효율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

5. 시험과 보고서 전략

나는 시험을 전혀 보이고 있지 않다. 시험은 중·고등학교 때까지 본 것으로 충분하다고 본다. 대학 와서도 어쩔 수 없이 보아야 하는 토플이나 대학원 입학시험과 같은 시험이 많은데 굳이 인문학 과목에서까지 시험을 봐야 하는지 의문이다. 특정 시간에 특정 문제로 한 사람의 능력을 집중적으로 평가한다는 것은 불합리하다. 그보다는 수시로 받는 보고서와 수업 참여도를 위주로 평가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

보고서는 그 내용도 중요하지만 보고서를 어떤 방식으로 만들어 내느냐 하는 형식적 과정도 중요하다. 보고서는 중·고등학교 때의 숙제라는 개념과는 다르며, 대학의 지적 담론을 형성해가는 데 중요한 의미작용을 한다. 그래서 먼저 학생들이 표절하거나 모방하지 않고 좀더 진지하고 창의적인 보고서를 내도록 유도해야 한다. 표절을 방지하기 위한 전략으로 나는 디스켓을 함께 받아 그 파일을 통신에 공개하는 방법을 쓰고 있다. 공개를 하게 되면 표절이 쉽게 들통나므로 학생들은 표절을 자제(?)하게 된다. 그리고 생태주의 관점을 적용하여 보고서의 형식을 간결하게 한다. 이를테면 뚜껑을 따로 만들지 않게 하고 박음쇠도 한 개만 찍게 한다. 평가방식은 창의력 40퍼센트, 논증력 40퍼센트, 형식 20퍼센트로 설정해 창의력과 분석력을 높이 평가한다. 또한 자신의 글을 통신

이나 신문, 대자보 등에 발표하면 가산점을 준다. 교양국어가 언어전략을 효율적, 역동적으로 실천하는 태도를 가르치는 것이라면 평소의 언어실천 행위를 중요하게 여길 수밖에 없으므로 이러한 가산점을 주는 것은 좋은 촉발제이다.

학생들한테 받은 보고서는 아무리 바빠도 구체적으로 평가를 해 준다. 단, 보고서에 체크해서 나눠주는 방식이 아니라 아래와 같은 50자 총평을 해서 준다.

김아인 : 똥에 대한 맥락 비판 참으로 날카롭구나. 아인슈타인의 과학적 감수성을 타고 난 듯. 그런데 논설문이 아닌 이상은 독자의 반응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 교과서의 어디에 나오는지. 논설문은 독자 반응을 고려하면 안 되는지 의문이 드는구나.

심선하 : 수원 지방과 안성 지방에 대한 대비 분석이 무척 좋다. 뒷부분의 토박이말에 대한 막연한 사람보다는 이런 문제들 더 썼으면 좋았겠다.

이경화 : 동아리, 새내기 등의 말이 대학생들의 인텔리 의식에서 나온 것이라는 추론은 정말 재미있다. 나머지는 너무 단순하게 언급되었구나.

이수지 : 압존법을 써야 한다는 논지가 꽤 설득력이 있다. “제 남편이 그런 것은 별로 좋아하지 않으셔서요.” 이런 표현은 귀에 거슬린다. 그러나 모든 압존법 표현이 이렇게 거슬릴까. 높임법이 상황에 의존하는 측면이 강하므로 압존법도 서로 다른 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원경 : 개인주의와 이기주의를 중심으로 언어 문제를 잘 살폈구나. 저자의 생각과 원경이의 생각이 좀더 분명하게 드러났으면 좋았겠다.

이해원 : 언어 교육에 대한 비효율성과 결부시킨 점이 돋보인다. 그런 학교 지식과 내용을 좀더 연계시켜 논증했으면 더 좋았겠다.

정대현: 삼천포에 대한 새로운 해석(거센소리 때문에 그 지명이 선택되었다는)이 놀랍다. 그럴 듯하다. 이런 비판적 창조적 관점으로 더 많은 얘기를 했으면 좋았겠구나.

이 50자 총평은 한 학기에 230여 명을 가르치는 선생이 학생들 보고서에 개입할 수 있는 최대한의 성의라고 생각한다. 한 학기에 보통 서너 개의 보고서를 받으므로(기말 보고서는 나눠주지 않음) 최소한 500개의 보고서를 꼼꼼히 읽고 평가를 해 주는 셈이 된다. 시간당 강사료 2만 원을 받으면서 이렇게까지 해 주는 것이 가끔은 억울(?)하다는 생각도 들지만, 내가 가르치고 있는 한 학생들에게 최선을 다하는 것이 가르치는 이로서, 학문을 하는 이로서 최소한의 양심이라고 생각한다.

50자 총평은 학생 보고서의 잘된 점과 부족한 점을 함께 지적해 준다. 어느 한쪽만을 지적하는 것보다 교육적 효과가 크기 때문이다. 여러 가지 지적 사항 가운데 아주 핵심적인 내용 두세 개를 평가해 주는 것이다. 그러니까 해당 학생만이 독특하게 잘한 점이라든가 잘못된 점을 위주로 평가를 해준다. 또한 모든 학생의 평가를 공개함으로써 평가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자신의 보고서를 다른 학생과 비교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어 좋다.

6. 학점 평가 전략

지금은 거의 모든 대학이 학부제의 영향 탓인지 상대평가를 하고 있지만 나는 이 제도를 반대한다. 상대평가 제도 속에서는 선생과 학생 모두 수업의 주체로 구

성될 수 없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선생은 학생들을 일렬로 세워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다양한 수업을 하는 데 많은 제약이 따른다. 학생들도 아무리 노력해도 C나 D를 받아야 하는 상황에서 의욕을 잃거나 성적 계산에 몰두하는 성적기제로 전락하게 된다. 연세대학교에서는 A: 20~30% (A+: 4.3, A0: 4.0, A-: 3.7), B: 25~35%, C: 25~35%, D: 10~30%, F: 0~10%로 요구하고 있다. 당연히 나는 A와 B는 최상 범주, C와 D는 최하 범주를 택한다.(A: 30%, B: 35%, C: 25%, D: 10%, F: 0~1%). 이렇게 하는 이유는 학생들이 열심히 한 탓도 있지만 상대평가의 부당성에 대한 저항, 성적으로 모든 것을 평가하는 우리 사회의 성적제일주의에 대한 내 나름대로의 저항 전략이다. 내 자신도 한때 방송국 PD가 되고 싶었으나 대학교 때 학점이 나쁘다는 이유로 아예 시험조차 응시하지 못했다. 나는 그 분야에 상당한 소질이 있다고 생각했고 주위에서도 그것을 인정했지만 단지 성적 때문에 그 꿈을 포기해야 했다. 이런 아픔은 내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본다.

물론 기존의 절대평가 방식에 부당성이 어느 정도 있음을 알고 있다. 에이(A) 폭격기 교수, 에프(F) 폭격기 교수라는 말이 상징해 주듯이 교수의 개인적 주관이 너무 개입된 학점 부여가 꽤 많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런 문제가 있다고 해서 상대평가를 도입하는 맥락은 옳지 않다. 그런 교수들이 있다면 강의평가와 강의백서 발간 등으로 제동을 걸 수 있기 때문이다.

아무튼 학점 부여는 수업 참가 40%, 조별 토론 참가 30%, 중간고사 대체 보고서 10%, 기말고사 대체 보고서 20%로 구성하

여 평가한다. 여기서 수업 평가 40%는 단순 출석에 의한 평가가 아니다. 3분의 2 출석만 넘기면 다 나온 학생이나 두세번 빠진 학생이나 출석 그 자체로 인한 점수 평가 차이는 없다. 그러니까 여기서의 수업 참가 평가는 앞에서 얘기한 문제설정과 발표, 수시로 받은 비정기 보고서 따위에 의한 것이다.

6. 마무리

학생들과 처음 만날 때와 종강 때 함께 나누는 시가 있다. 첫시간에 함께 낭송하며 이런 만남을 위해 기도하지만 막상 함께 한 학기 동안 여행을 떠나보면 쉽지 않은 것만은 사실이다. 그래도 한 학기 인연치고는 괜찮은 인연들을 맺고 우리는 헤어진다.

한 그리움이 다른 그리움에게

정희성

어느날 당신과 내가
 날과 씨로 만나서
 하나의 꿈을 엮을 수만 있다면
 우리들의 꿈이 만나
 한 쪽의 비단이 된다면

나는 기다리리, 추운 길목에서
 오랜 침묵과 외로움 끝에
 한 슬픔이 다른 슬픔에게 손을 주고
 한 그리움이 다른 그리움의
 그윽한 눈을 들여다 볼 때
 어느 겨울인들 우리들의 사랑을 춥게 하리
 외롭고 긴 기다림 끝에 어느날 당신과 내가 만나
 하나의 꿈을 엮을 수만 있다면.

그렇다. 수업은 선생과 학생이 서로 만나 하나의 꿈을 엮는 것이다. 아니 굳이 하나의 꿈일 필요는 없다. 수많은 꿈이 교차하되 서로 나눌 수 있는 꿈이다. 토론과 발표, 진행의 열린 전략을 통해 가르치는 이와 배우는 이를 복수화시키고 서로의 개성을 존중하면서도 서로의 꿈을 교차시키는 수업. 그런 수업을 위해 나는 끊임없이 긴장하고 호쾌하게 웃는다. ♣

김슬옹/연세대 국어국문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 박사과정을 수료하였다. 현재 연세대에서 강의를 하고 있으며, 연세대 사전편찬실 및 한글학회의 전임연구원, 국어정보학회 선임연구원 등을 거쳤다. 저서로 『우리말 산책』, 『한글 이름짓기 사전』, 『발가벗은 언어는 눈부시다』, 『통합교과와 생각하기 논술』과 “개념적 의미에 관한 몇 가지 오해에 대하여” 외 다수의 논문을 발표하였다.